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께 응답하기 성경: 이사야 6장

Tag:

1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यो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

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6:1-13)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B.C. 740-680년경; 약 60년 동안 예언활동을 하였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환상에 대한 기초가 된다.
(가능하면 1장 전체를 읽을 것)

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1:1-6)

당시 유다는 매우 부유하고 번성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패했다.
- 결국 멸망하고 거룩한 자만 남게 된다. (핵심 사상)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 율법주의와 기복적 신앙생활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먼저 역겨워 하신다.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1:13)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1:15)

- 그 원인은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 악을 감추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며 성회로 모인다.

- 선행을 배우고, 행하며

-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학대 받는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도와주는 척 한다.

-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정의 프레임을 성경식 정의 프레임이라고 속이고 있다. (김용균 사망; 원청과 하청의 문제로 끌고 감. 작업 책임자들이 책임있는 직업교육을 등한히 함. 김용균씨는 작업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결코 헤드 램프가 없는 작업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책임이고, 안전을 점검하지 않는 사수의 책임이다. 책임자 처벌로 가야지 사회주의 프레임으로 가면 악한 것.

더 큰 원인은 원전을 폐기하고 석탄 발전을 가속화 함. 원전보다 석탄 발전이 훨씬 더 위험하고 고 비용이며 미세먼지의 주 원인임. 원청의 원청은 정부임.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회사 사장과 임원들에게만 책임을 떠 넘김. 하청을 없애려는 것은 비용을 더 높이는 것이고, 결국은 전체 전기값 상승의 원인. 한전 적자 1조원이 넘음. 세계 유일의 흑자 전기회사가 몇 년새 이렇게 됨.)

- 정의란 약자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 그러니 반드시 선별하여 구제하라.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이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1:17)

-변론하자;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문제를 해결 해 보자.
-하나님께 답이 있다. 죄를 씻고 거기에서 떠나며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 바람직한 삶으로 나아가자.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1:18)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사 5:1-4)

6장의 말씀을 살펴보자.

1절은 웃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아마도 이사가 왕의 죽음과 관련된 위기감 때문에 성전을 찾은 것 같다.)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천사들을 말함.

여섯 날개 중 가리는 날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말(생각)과 행동을 가림.

2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사야는 회개와 함께 탄식한다.

-이사야는 제단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하여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 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첫 번째 응답은 소명에 대한 응답.

-그러자 매우 이례적인 미션을 주셨다.

-율법주의 우상숭배 행악자들에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심.

-거짓 회개, 거짓 예물,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과 예정된 심판에 대한 내용.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
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이유는 거룩한 씨 때문
임.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들이 남겨질 것임을 예언한 것임.
즉, 이 말씀은 거룩한 채 남겨진 자들을 위한 말씀.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6:1-13)

두 번째 응답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예배와 성전은 거룩한 삶의 기본 (헌금이 많아지고 예배당은 화려해
진다. 이사야 시대가 그랬다. 삶은 풍요롭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
하겠다! 가 68운동의 핵심)

화려하고 편리한 예배당이 오늘날의 기본이 됨.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목사가 대중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군중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응답은 거룩한 삶이다.

그것은 결코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찬양예배〉

제목 : 정치와 교회생활 성경: 에베소서 6장 10-20절

Tag: 리더훈련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6:10-20)

정치는 교회에서 언급하면 안되는가?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현재까지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종교가 국가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그러나,
미국은 매우 개신교적
프랑스는 매우 카톨릭적이었다가 68혁명으로 초토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은 매우 루터교적이었다가 68혁명 당함
영국은 성공회적이었다가 이슬람세력으로 곤욕 중
이슬람은 정교일치적 계속해서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공산주의 국가는 반 개신교적 그러다 자유 경제 이식 중 부작용 속
출

대한민국은?
매우 복잡함. 가장 큰 문제는 북한정권.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
남한은 북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개신교적, 박정희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경제적 승리를 거둠. 한국교회는 박정희와 호흡을 같이
함.(서로 열심히 함)

동일한 케치프레이즈;반공 멸공 충성

-프랑스 68년 혁명(운동;반체제, 반문화 운동)이후, 개신교는 공격
받고 있음.

-68운동은 기독교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 기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반 기독교적 성향에 자극됨.

-미국의 히피 운동.

-성차별, 인종차별, 권위주의 배격

-성개방, 여성상위, 동성애 허용 등 주로 개신교 윤리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불었다.

-개신교에 대한 저항을 통해 서로 공격하지 않는 체제들; 반체제 운동, 신 좌파운동, 공산주의 운동, 이슬람. 주체사상.

-그러나 성경은 매우 정치적이다. 예언자들도 매우 정치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명목상으로는 정치적 이유

-성경은 정교분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함. 다만 천년왕국 이전에는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함.

-그러므로 교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정권은 자꾸 바뀌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교회는 진리를 외치고 거룩한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정권을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교회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정치를 등한시하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된다.

-정권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표를 몰아주어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대응 전략과 전술이 다를 수는 있다.

